2017. 7. 6. (목) 언론보도

경기일보

2017년 07월 06일 (목)
03면 종합

DMZ 평화누리길, 경기~강원 잇는다

DMZ 관광 활성화 상생협력 워크숍
종주 투어도 내년부터 13코스로 확대

김포~연천까지 12 코스 191㎞의 평화누리길이 13 코스 강원도 철원까지 연결된다. 또한 강원도 평화누리길도 애초 계획인 2020년보다 앞당겨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4~5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기·강원 상생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양도가 지난 2015년 4월 체결한 경기도-강원도 상생협약 중 하나인 평화누리길 연계·조성을 통한 DMZ 관광활성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도를 비롯해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DMZ 일원의 시군 및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평화누리길 조성과 운영 현황, 평화누리길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강원도 평화누리길 화진포 구간을 직접 걸으며 폭넓은 평화누리길의 활용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10년부터 조성돼 운영 중인 경기도 평화누리길(1~12코스)과의 연계를 위해 강원도 구간의 시작점인 철원 구간의 코스명칭을 13 코스로 하고 안내표지판 등의 디자인도 경기도 평화누리길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조성예정인 강원도 평화누리길을 양도가 협력해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던 평화누리길 종주 투어도 2018년부터는 강원도 철원 13 코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양도가 공동개최하고 있는 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를 활성화하고 전국 자전거 동호인의 많은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코스의 다변화와 기록측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양도는 평화누리길 활용 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 DMZ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길재 도 DMZ정책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도가 DMZ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함께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14.4 X 15.4 cm

중부일보

2017년 07월 06일 (목)
01B면 종합

경기도·강원도, DMZ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철원 구간 코스 명칭 13코스
안내표지판 등 디자인 동일화

경기도와 강원도가 평화누리길 연계 방안과 축제 개최 등 DMZ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4~5일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기·강원 상생협력 워크숍'을 개최해 DMZ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양 도는 2010년부터 조성돼 운영 중인 경기도 평화누리길(1~12코스)과의 연계를 위해 강원도 구간의 시작점인 철원 구간의 코스명칭을 13코스로 하고, 안내표지판 등의 디자인도 경기도 평화누리길 것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조성예정인 강원도 평화누리길을 양 도가 협력함으로써 조성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던 평화누리길 종주투어도 2018년부터는 강원도 철원 13코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양도가 공동개최하고 있는 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를 활성화하고,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많은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코스의 다변화와 기록측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길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 도가 DMZ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강원도와 함께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누리길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191km를 잇는 둘레길로 2010년 5월 경기도에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방문객이 천만 명을 돌파했다.

조윤성기자

17.0 X 9.6 cm

인천일보

2017년 07월 06일 (목)
02(경기편)면 종합

경기·강원 "DMZ관광 활성화 묘안은"

워크숍 열어…평화누리길 조성·운영현황·관리방안·상품개발 논의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기·강원 상생협력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양 도가 지난 2015년 4월 체결한 '경기도-강원도 상생협약' 가운데 하나인 '평화누리길 연계·조성을 통한 DMZ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날에는 평화누리길 조성과 운영 현황, 평화누리길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평화누리길의 향후 활용방안 등을 토의했다.

양 도 관계자들은 경기도 평화누리길(1~12코스)과의 연계를 위해 강원도 구간의 시작점인 철원 구간 코스명칭을 13코스로 하는 데 합의했다.

또 경기도 구간에서만 열리던 평화누리길 종주투어를 2018년부터는 강원도 철원 13코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화누리길 활용 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 DMZ 일대 관광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길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은 "양 도가 DMZ관광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함께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누리길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191㎞를 잇는 둘레길로 지난해 방문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 조성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동서(541㎞)를 횡단하는 명품 둘레길이 될 전망이다.

/강성준·윤용민기자 now@incheonilbo.com

23.3 X 8.3 cm

경기신문

2017년 07월 06일 (목)
01면 종합

'DMZ 관광 활성화' 경기·강원도 '맞손'

상생협력 워크숍… 평화누리길 관광상품 개발 등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와 강원도가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양 도는 4~5일 이틀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소재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기·강원 상생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양 도가 지난 2015년 체결한 '경기도-강원도 상생협약' 중 하나인 '평화누리길 연계·조성을 통한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해 고양·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DMZ와 인접한 시군과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양 도의 평화누리길 조성과 운영 현황, 평화누리길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둘째 날에는 강원도 평화누리길 화진포 구간을 직접 걸으며 평화누리길의 활용방안 등을 고민했다.

이번 상생협력 워크숍을 통해 양 도 및 시군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았다.

2010년부터 조성돼 운영 중인 경기도 평화누리길(1~12코스)과의 연계를 위해 강원도 구간의 시작점인 철원 구간의 코스명칭을 13코스로 하고, 안내표지판 등의 디자인도 경기도 평화누리길 것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조성예정인 강원도 평화누리길을 양 도가 협력함으로써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던 평화누리길 종주투어도 2018년부터는 강원도 철원 13코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양 도가 공동개최하고 있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를 활성화하고,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많은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코스의 다변화와 기록측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길재 도 DMZ정책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 도가 DMZ관광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함께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화누리길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191km를 잇는 둘레길로 2010년 5월 경기도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방문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

강원 평화누리길은 2010년 행정자치부의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정, 총 350km중 현재 283km가 조성됐다. 2020년 조성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동서(541km)를 횡단하는 명품 둘레길이 될 전망이다.

/김주용기자 jyk@k

17.8 X 12.5 cm